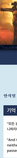
악의 문제

제 7 주 : 2020년 7 월 11 일 ~ 7 월 17 일



안식일 학교 본문 공동 연구

기억 본문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어 주시리니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하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감이니라 - 요한계시록 21:4

"And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shall be no more death, neither sorrow, nor crying, neither shall there be any more pain: for the former things are passed away." KJV — Revelation 21:4

"영원 사랑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그것은 사악한 행위에서 자유로운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의 기초이다. 그것은 우주 전체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를 창조하신 분의 사랑의 증거를 말하고 있다. 그분의 마음은 수많은 피조물들에게 넘쳐 흐르는 것이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이었고 그분의 기쁨이었다.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and have washed their robes, and made them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fore are they before the throne of God, and serve Him day and night in His temple: and He that sitteth on the throne shall dwell among them.'" Revelation 15:2, 3; 7:14, 15. MB 31.1

2월 14일 금요일

추가 생각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온 우주에 평화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뜻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지극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은 공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본성, 성품, 목적이 하나이시며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하늘의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만물 곧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골 1:16), 아버지와 똑같이 그리스도께 온 하늘이 충성을 바쳤습니다." GC 493.1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이며, 모든 피조물의 행복은 그 위대한 의의 원칙에 대한 완전한 일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분의 성품에 대한 지적인 인식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섬김, 즉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강요된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GC 493.2

"그러나 이 자유를 왜곡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느님께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았고 하늘의 주민들 가운데 권세와 영광이 가장 높았던 그에게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 루시퍼는 거룩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천사들 중 첫 번째 천사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주님은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합계를 봉인하셨나이다. 주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계셨으니 모든 보배로운 돌이 주를 덮었나이다.... 너는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나니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계셨고 불 돌 가운데서 오르내리셨도다. 네가 지음 받은 날부터 네게 죄악이 발견되기까지 네 길은 완전하였도다'. 에스겔 28:12-15." GC 493.3

"Before the entrance of evil there was peace and joy throughout the universe. All was in perfect harmony with the Creator's will. Love for God was supreme, love for one another impartial. Christ the Word, the Only Begotten of God, was one with the eternal Father,—one in nature, in character, and in purpose,—the only being in all the universe that could enter into all the counsels and purposes of God. By Christ the Father wrought in the creation of all heavenly beings. "By Him were all things created, that are in heaven, ... whether they be thrones, or dominions, or principalities, or powers" (Colossians 1:16); and to Christ, equally with the Father, all heaven gave allegiance. GC 493.1

"The law of love being the foundation of the government of God, the happiness of all created beings depended upon their perfect accord with its great principles of righteousness. God desires from all His creatures the service of love—homage that springs from an intelligent appreciation of His character. He takes no pleasure in a forced allegiance, and to all He grants freedom of will, that they may render Him voluntary service. GC 493.2

"But there was one that chose to pervert this freedom. Sin originated with him who, next to Christ, had been most honored of God and who stood highest in power and glory among the inhabitants of heaven. Before his fall, Lucifer was first of the covering cherubs, holy and undefiled. "Thus saith the Lord God; Thou sealest up the sum, full of wisdom, and perfect in beauty. Thou hast been in Eden the garden of God; every precious stone was thy covering.... Thou art the anointed cherub that covereth; and I have set thee so: thou wast upon the holy mountain of God; thou hast walked up and down in the midst of the stones of fire. Thou wast perfect in thy ways from the day that thou wast created, till iniquity was found in thee." Ezekiel 28:12-15." GC 493.3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